

종단소식

조계종 행자교육 개선 공청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은 15일 오전 10시 불교회관에서 '기초(행자)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이 발제를 맡고, 법장(수덕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광평(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일(행자교육원 교수) 우진(홍도사승가대학 교수)스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로 충북 괴산 총지종 수련원에서 '제8회 여름학생 수련대회'를 연다.



통리원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 가자'라는 수련대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법회는 물론 달빛산행, 총지놀이마당, 여름밤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통한 진실한 마음가짐 및 공동체생활 정신을 배양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운사 삼성각 낙성식

외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10일 삼성각 낙성식과 대중 요사채인 연지암 중수회향식을 봉행했다. 삼성각은 건평 8평으로 착공 7개월여만에 완공됐다.

태고종 구치소에 도서 1천권 보시

총무원 사회부(부장 호명스님)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영동포구치소에 경전, 불교요양서적, 일반서적 등 1천권을 전달했다. 사회부는 이와관련 종단차원에서 '영동포구치소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종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동암사 미륵불 점안식

제천 동암사(주지 원산)는 5일 미륵불 점안 및 예수재를 봉행했다. 미륵불은 불상만 3.6m로 좌대까지 포함하면 10.9m에 이르는 대불이다. 예수재는 미륵불 점안에 이어 봉행됐다.

삼광사 청년회 창립 24돌

삼광사(주지 덕수)는 5일 지관전에서 청년회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교무 수산스님은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정진을 더욱 부지런히 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학생 수련대회

통리원(원장 총지화·사진)은 27~29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충북 괴산 총지종 수련원에서 '제8회 여름학생 수련대회'를 연다.

알릴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중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찰-신도 지역환경 파수”

봉은사 지도자 환경교육 '현장'

“환경문제는 단순한 환경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각성의 계기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찰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도들도 법회 위주의 생활을 벗어나 지역 환경·사회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문을 연 '봉은사 지도자 환경교육' 현장. 7월6~28일(매주 월·화요일) 사찰에서는 처음 열린 환경교육에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첫번째 강사로 나섰다. 그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환경운동은 의식의 전환과 실천이 담보되는 생명운동"임을 강조했다. 봉은사 각 신도회 간부들로 구성된 40여명의 교육생들은 그간 막연하게만 생각해 온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불자들이 지켜야 할 환경수칙을 되뇌었다. △사찰주변 환경요

7월6~28일 우선 간부 40명 교육

자연세계 사용하기 등 불자 환경수칙 배워

수료생 환경모임 구성 지속적 활동 퍼기로

교육은 불자들이 사찰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환경운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찰에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답사와 실습교육도 특별히 병행할 계획이다. 강사진도 전문가들로 짜여졌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녹색교통운동본부 임삼진 사무총장, 김동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봉은사 신도회 간부 40명은 7월6일부터 28일까지 환경교육을 받고 사찰환경지킴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교수, 자연생태연구소 유창희소장, 이상국 '한살림' 상임이사,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등 9명의 저명한 환경운동가들이 맡아 불교환경운동의 전문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봉은사 종무실 전대식 과장은 "DMF 관리체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자연에 대한 인식부족, 과소비 등 물질위주의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생태학교를 개설했다"면서 "사찰 구역법회나 불교대학문화 임원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통한 신도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 후 제2기 생태학교부터는 일반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교육원은 봉은사 환경교육이 사찰환경교육의 새 전형이 될 것으로 판단. 전통사찰 등에서 환경교육을 의뢰할 경우 생태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02)765-6324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구체적 불교수행으로 달인 마음을 여는 통사법 법회는 순간을 부쳐로 사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순간 순간 부처로 삼시다”

용타스님 우리는 선우서 통사법회 열여

‘부처로서 이 순간을 산다’ ‘삶의 결론을 나눈다’ 4일~5일 열린 우리는 선우의 통사법회 현장의 주체다. 이번 통사법회는 미국 삼보사에서 일시 귀국한 용타스님의 지도로 1박2일간 진행됐다. 80년 부터 용타스님에 의거 시작된 통사법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었는데 이번 법회에도 우리는 선우 회원의외에 소문을 듣고 온 비회원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천주교 신자와 수녀님도 참가했다. 이번 통사법회에는 IMF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참여한 이들을 비롯해 달인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불교수행을 구체적으로 체득하기 위해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삶의 결론이란 노답입니다. 느낌을 살피며 알고,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통사법입니다.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느낌만큼 행복해지고, 그 만큼 해탈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 자신은 부처인 것입니다”

광주 실업자대책위 발족

불자 2백명 활동...온니선원은 '쉼터' 개설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업자들의 신심함양과 재취업을 위한 실업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실업대책위원회(위원장 무선·온니선원)는 5일 광주우체국사거리에서 천은 향림사조실을 비롯 고재유 광주광역시청 등 사무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실업대책위원회에는 각 사찰 스님을 비롯 광주지역 불자 2백여명이 가입, 활동하게 된다. 이날 무선스님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을때 앞장서 극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온니선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실업자 쉼터’를 개원. 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 선체조, 단전호흡, 강의 등을 비롯 각종 상담활동을 받고 있다. 실업자쉼터는 하루 평균 20여명의 실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주흥직 기자)

진각종 중학연구실 개원

교법·포교등 연구...실장에 혜정대정사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중학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교법정립을 위해 중학연구실을 개원한다. 진각종은 중학연구실을 교육원장 직속기구와 하고 교법 및 교육, 포교에 대한 기회와 연구업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진각종은 중학연구실장에 혜정대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를 위촉하고 효봉진선여교 정교, 관중 교육부장, 회성교법국장, 권경진각대 교수, 진경위덕대 교수, 덕덕 위덕대 교수, 지현진각복지회 국장을 연구원에 선임하는 등 인사작업을 마무리했다. 중학연구실은 20일 오후 3시30분 교육원에서 개원식을 가진 후 중학 및 교법 자료데이터베이스화를 통

왕궁리유적 사적 예고

계룡산 남매탑 보물예고

국보 289호인 왕궁리 5층석탑이 있는 익산 왕궁리유적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또 남매탑으로 잘 알려진 계룡산 청량사지 7층석탑과 5층석탑은 각각 보물로 지정된다. 윤기석 기자

범자문비 방치 공원에 10년째

남한에서는 유일한 범자문비(梵字文碑·일명 대불정주비)가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정원에 방치돼 훼손이 우려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범자문비는 가로 161cm 세로 31cm 두께 31cm로 제천시 한수면 월광사지와 관련이 있는 유물. 지난 87년 월광사지 입구 논가운데 방치된 것을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리사무소가 들어 서면서 정원으로 옮겨 관리하고 있으나 정원의 습기와 이끼 등의 피해로 비문 미발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윤기석 기자 (gysoon@buddhopia.com)

보살선원 후불탱화 봉안

대구 팔공산 보살선원(이사장 각현)은 6일 사무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를 봉안했다. 삼존불 후불탱화는 가로 4.5m, 세로 2.7m 크기다. 이윤호 기자 (yihlee@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법왕정사 수행원' (Law King Temple Practice) featuring a list of activiti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photo of a person in traditional robes.

Advertisement for '장가안가길 잘했네' (I did well on the way to my in-laws) by 베스트셀러 (Best Seller)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I eat meat every day...). Includes a list of book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관음출판사' (Gwan-eum Publishing) featuring '관상수상학 강의' (Lectures on Physiognomy and Fortune-telling) and '사주학 핵심비결' (Key Secrets of the Four Symbols). Includes book cover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현대불교' (Modern Buddhism) featuring a list of 2000+ phone numbers for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organizations across different regions.